

문화 교류 업무협약차 광주 방문 **윌프레드 윙** 홍콩예술발전국위원장

“**표 문화전당 - WKCD는 보완관계**

〈서구문화지구 프로젝트〉

광주·홍콩, 미래 함께할 최고 파트너”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홍콩은 “현금만 있고 문화는 없는 도시”라는 오명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근래 아트비절, 홍콩 아트페스티벌, 디지털 위크 등 굵직한 문화콘텐츠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아시아의 뉴욕’으로 변신중이다. 이러한 홍콩의 자신감은 1995년 창설된 홍콩예술발전국(The Hong Kong Arts Development Council·이하 ADC·위원장 윌프레드 윙)과 오는 2017년 1차 개관을 목표로 진행중인 서구문화지구 프로젝트(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WKCD·총 2조3787억원을 투입해 오는 2031년까지 대형 공연장 등 15개 문화시설 조성)에서 나온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차 지난 5~7일 광주에 온 윌프레드 윙(62·Wilfred Y.W. Wong) 위원장은 광주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ADC의 미션은 홍콩 예술인들이 마음껏 예술적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광주비엔날레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가 진행중인 광주는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MOU를 체결한 이유는.

▲ADC는 예술인들의 창작지원을 위한 보조금 배분에서부터 정책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특히 ADC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예술인들의 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다. 사실 홍콩은 면적이 협소한 탓에 임대료가 높아 예술가들이 작업할 만한 공간이 많지 않다. 근래 ADC가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외국과의 네트워크에 주력하는 것도 홍콩 예술인들을 ‘우물안의 개구리’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이번 한국 문화예술위원회와의 교류로 앞으로 4년동안 매년 예술가 5명이 상호교류하게 된다. 예술의 도시인 광주의 예술가들과 홍콩 예술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뿌듯하다.

현재 광주는 홍콩의 WKCD와 유사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진행중이다. 내년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면 WKCD와의 경쟁이



윌프레드 윙 위원장은 “내년 표 문화전당이 개관하면 광주와 홍콩 예술인들의 교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사진제공=아시아 문화포럼 사무국>

“홍콩예술발전국 미션은 창의적 예술인의 육성

4년간 한국 예술가 20명과 상호 교류 기회 뚝뚝”

불가피할 것 같다.

▲지난해 ADC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한 지경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위원장으로부터 광주의 ‘빅 프로젝트’를 듣게 됐다. 내 생각엔 WKCD와 아시아문화전당은 경쟁 보다는 보완(complement)관계가 될 것이다. 두 기관이 문을 열면 양 도시의 예술가와 예술단체에게는 교류의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홍콩과 이웃도시인 중국 심천의 예술가들이 공동으로 개최한 ‘Creative Arts Festival’이 그런 경우다. 광주와 홍콩 역시 미래의 콜레보레이션 파트너가 될 것이다.

다들 말하길 광주에서 열리는 2014 아시아 문화포럼에서 ‘예술교육과 문화융성’을 주제로 기초발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술교육과 문화융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술교육은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창의적인 세대를 길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ADC는 이러한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08년부터 예술적 역량과 열정을 가진 초·중학교 학생들을 예술대사로 임명하는 ‘학교예술대사’(Arts Ambassadors-in School Scheme)를 도입, 미래의 예술가들을 키우고 있다. 그 결과 약 5500 명의 젊은 예술가들이 배출됐고 문화애호가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예술인들의 처우개선이 한국 문화예술계의 화두다. 홍콩은 어떤가.

▲마찬가지다. 홍콩은 올해 약 4344억 원의 예산을 문화예술 분야에 지출했다. 이중 400억 원이 홍콩 발레, 홍콩 필하모니 등 6개 시립단체에 배정됐고 약 126억 원이 소규모의 예술단체와 예술가의 창작지원에 쓰였다. 하지만 이 정도 예산으로는 늘어나는 예술가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민간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스폰서십을 펼쳐 복지의 시각지대를 없애는 게 우리의 목표다.

/박진현문화선원기자 jhpark@

축제로 질어가는 남도의 가을

김치·충장·명량대첩 축제 등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강화

제법 뒤끝을 보이는 여름을 뒤로 하고 추석 연휴의 끝자락과 함께 다가온 가을은 광주·전남의 가을 축제로 만끽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광주에서는 지난 5일 개막한 광주 비엔날레에 이어 다음달 4일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 8일 추석의 7080충장 축제 등이 준비돼 있다.

전남에서도 오는 26일 보성 다향제 녹차대축제, 남도음식문화대축제 등을 시작으로, 10월 중순까지 매주 주말, 곡성 심정 효문화 대축제, 2014명량대첩축제, 순천만 갈대축제 등이 열린다.<표 참조> 올 가을 축제는 지역주민의 참여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우선 올해로 21년째를 맞은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10월 4~8일)는 김치객석 마당과 김치비보이, 어린이 재롱잔치 김치스타일, 5개 자치구 시민한마당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추석의 7080충장축제도 시민이 직접 무대를 만들어내는 음악공연과 창작 콘텐츠 등을 축제 곳곳에 배치했다.

올 가을 전남지역 축제도 무대를 주민에게 되돌려 줄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연예인 공연과 이벤트 행사 등으로 채워졌던 공연 무대는 22개 시·군의 주민들이 직접 만든 문화예술 공연으로 대체돼 축제의 흥을 돋운다.



광주·전남 가을 축제 일정

축제명칭	기간	장소	주요 프로그램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	10. 4~8	광주 중외 공원 일원	외국인·어린이·청소년 김치 탐험, 김치사랑 콘서트 등
제11회 추석의 7080충장축제	10. 8~12	광주 동구 충장로 일원	추석의 테마거리, 전국거리 퍼레이드 경연 등
보성 다향제 녹차대축제	09. 26~28	한국차문화공원, 보성차밭	한국차문화선정대회, 전국학생차예절선발대회, 티아트페스티벌 등
남도음식문화대축제	09. 26~28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 일대	남도음식문화전시관, 음식 만들기 체험, 음식경연대회 등
곡성 심정 효문화 대축제	10. 2~5	곡성 심정강기차마을 일원	지리산자락 열린콘서트, 심정골청춘년문화제, 세계바텐더대회 등
2014명량대첩축제	10. 9~12	해남군 우수영관광지, 진도군 녹진관광지 일원	해전 재현, 만가 행진, 초요기를 울려라 등
순천만 갈대축제	10. 17~19	순천만정원, 순천만, 순천시 일원	'가든 파티', 갈대 배 만들기, 순천만 새벽투어 등

남도음식문화대축제의 음식전시관에 는 남도음식명인과 시·군을 대표하는 조리사가 만든 음식이 전시되고, 음식 판매장터에서는 시군의 추천을 받은 식당에서 특색 있고 맛깔스런 음식을 소량, 소액으로 판매한다.

관광객 체험도 음식축제장에 걸맞게 시군 농촌체험마을에서 운영 중인 음식 만들기 체험을 중심으로 꾸며져 축제가 농촌체험 관광으로 연계되도록 했다.

명량대첩축제는 해남·진도 주민 1만여 명이 직접 참여해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흥밋거리를 안겨준다. 축제의 백미인

해전 재현에는 500여 명의 어린이들이 100척의 선박을 가지고 나와 판옥선과 왜선으로 직접 치장을 하고 재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출정식에서는 21개 읍면 주민들이 구국행렬을 재현하고, 지역의 실화야사 등을 소재로 한 명량 마당놀이, 율동극 바다위에서 펼쳐지는 해상풍물 뱃노래, 500여 기의 만장고 6개의 상여가 연출하는 대규모 만가행진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대표적인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자·연금에도 건보료 부과

2천만원 이하 금융·일용근로·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앞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돼 월급 외에 이자, 연금 소득 등에도 보험료가 매겨진다.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 관련 정부, 학계,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단장 이규식)은 11일 오전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방향을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확대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2000만원을 넘는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다만 퇴직·양도 소득은 일회성 소득이고, 상속·증여소득의 경우 ‘재산’의 개념이 강해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2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법령 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이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보수에 대해 정률로 건보료를 내 왔던 직장가입자와 달리 재산·자동차, 성·연령 등을 점수화해 복잡한 방식으로 건보료를 매겨온 지역가입자도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소득 중심의 정률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성·연령, 재산 등 소득 외 부과요소는 담당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지 않고 소득 파악 수준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종전보다 축소·조정해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자동차 기준의 경우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되,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보험료 감경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재외국민도 주민증 발급

30일 이상 거주...내년부터

내년 1월22일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11일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 신고를 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외 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국민도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은 말소된다.

안행부는 재외국민 약 11만명이 주민등록 신고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 경제활동 편의가 개선되고, 소속감도 커질 것으로 안행부는 기대했다. 또 재외국민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함께 입법예고한다. /박지경기자 jkpark@

예쁜사람은 많다
돈 많은 사람도 많다
정신이 맑고 마음이 예쁜사람도 많았으면 좋겠다.
나눔과 배려가 세상을 바꾸듯이
신협이 예금과 대출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 비과세 예금 3,000만원 (1인당 예금보장 5,000만원)
- 대출최고한도 28억원 (최저금리 3.8%)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금호지점/중앙지점

2013년도 경영평가 최우수금고 선정

2013년 서양새마을금고 사랑 나눔
날짜: 2013년 12월 26일 장소: 남구문예회관

2013년 경영평가 최우수금고 선정
500가 2,400만원 100대
다문화 가정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

이사장 안두경 전무 하현준

2013년 금고자산 = 2,607억원
당기순이익 = 15억3천만원
출자배당금 5%

배당금 = 5.0% (현재 정기예금 금리 1년 3%)

서양새마을금고
본점 671-5000 양림지점 652-9203 주유사업소 720-2880 월산지점 364-7557

제5회 자동이체 행운이벤트

5,000만원 경품 1,479 분께 드리는 특급 이벤트!!

경품추첨일 2014년 10월 26일(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신청기간 2014년 10월 24일까지
응모대상 행사기간내 자동이체 3건 이상 신청, 기존유지고객
응모권보조조건 자동이체 3건당 1매 교부

경품안내
1등 50인치 벽걸이 TV 3명 5등 자전거 12명
2등 드럼세탁기 3명 6등 생활용품세트(大) 90명
3등 세습기 9명 7등 생활용품세트(中) 150명
4등 쿠키인력밥솥 12명 8등 이차상 1200명

*중복사은품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6등까지는 참석자 본인에 한하여 경품지급합니다. *중복당첨시 상위 상품으로만 지급합니다.
*경품행사는 응모한 회원에 한하여 추첨합니다.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671-5000 (KBC행주방송국 앞) 양림지점 652-9203 (기동병원 아래) 월산지점 364-7557 (대성초교사거리)